

- 본문 :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
- 제목 : “범사에 감사하라!”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· 본문 읽기

18.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

· 마음의 문을 열며

상록수는 아무리 계절이 변해도 항상 푸르다. 찌는 듯한 여름, 차가운 혹한의 겨울에도 항상 푸르다.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항상 푸르려야 한다. 상록수처럼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‘범사에 감사하라’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.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다.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? 이 시간 성령께서 감사가 없어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녹여 주시도록 기도하자.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

1. “범사에 감사하라”고 하실 때 무엇을 두고 감사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잘 묘사되어 있다.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?
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/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
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/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
2.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“살전 5:18”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?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?
3.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미 얻은 것에 대해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. 이것은 초보적인 감사이다. 창세기 32장 9~10절에서 야곱이 회상하는 것처럼,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.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. 도대체 왜 그럴까?
 * 창세기 32:9~10
4. 범사에 감사하려면 비교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. 무엇이 비교 감사인가?
 * 신명기 8:2, 12~14
5.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마다 문득 기억이 나면서 지금이 그때에 비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를 깨우쳐 주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?
6. “범사에 감사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. 디모데전서 4:4 말씀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보라.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

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며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?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.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.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?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?

· 말씀기도제목

1. “범사에 감사하라!”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때 “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자” 되게 하옵소서!
2. “범사에 감사하면”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과 내 신앙인격이 부드러워지는 은혜 주심을 확신할 때 “감사의 능력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!
3. 송원교회가 “범사에 감사하라!”는 명령 앞에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, “감사를 늘 기억하는 생명공동체”가 되게 하옵소서!